

# 2025년! K-민주주의 응원봉의 결실을 거두자

의정단상



박수기  
광주시의원

2024년 12월, 21세기 대한민국은 낭떠러지에서 위태로이 버티고 있다.

무속에 심취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검찰폭압 통치와 12·3 불법계엄으로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졌다.

윤석열 정부는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22대 총선의 국민 선택을 거부하고 부정하였다. 헌법으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요구를 무시하고 사회 민주주의 체제를 짓밟았다. 극우 이념에 치우쳐 역사를 왜곡하고 퍼주기 굴욕 외교정책으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였다.

무능한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경제성장률은 하락하였다. 위헌적인 불법계엄으로 2주일 동안 증시는 150

조원이 증발하고 환율은 1450원을 돌파하였다. 증시안정과 환율방어를 위해 5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미래자산인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다. G20의 대한민국 경제는 빠르게 무너지며 IMF보다 더 위태로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군대가 민주주의 미숙아 윤석열 사적 보위에 이용되었다.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켜왔던 선진 국방 안보시스템이 무도한 권력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했다. 절대왕정 추구를 떠오르게하는 친위쿠데타의 사실을 마주할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상처받고 심지어 섬뜩함을 느낀다.

2024년 끝자락, 위기의 대한민국은 국민의 민주주의 힘으로 지켜내고 있다. 광주의 과거가 대한민국의 현재를 도왔으며, 민주화 열사와 5·18 영령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살려냈다. 국가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윤석열을 시급히 파면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한다.

다가오는 2025년의 대한민국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돋움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과거에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경험이 있으며, 충분한 저력을 갖추었다.

1997년 보수세력 김영삼정부에서 김대중의 민주당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통해, IMF 국가위기를 극복하였다. 민주당과 김대중정부는 국민을 통합하고 K-콘텐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보통신, 반도체의 첨단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시장경제의 정착과 활성화로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였다.

‘1997년의 과거가 2025년의 현재를 살려’, 민주당 정부가 짐뿔하는 대한민국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것이, K-민주주의 응원봉의 결실이다.

국가의 모든 시스템을 무너뜨린 세력에, 또다시 정권을 맡겨선 안되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의 내란사태를 마주하며 다시금 운동화 끈을 묶는다.

## 社說

### 광주·전남 공지로 새해 위기 헤쳐가자

#### 불확실성 위기 기회 만들어야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이하는 광주시와 전라도가 ‘민생경제’에 올인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은 확장재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내년 민생경제 회복 예산 1082억원을 확보했으며, 미편성된 내년 국비예산은 조기 추경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송·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김 지사는 “더 위대한 전남”과 힘찬 비상을 위한 새해 7대 전략 중 민생안정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3개 사업에 예비비 등 1185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눈부신 미래상도 내놨다. 강 시장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광주의 강점을

살린 ‘광주 방문의 해’ 사업 추진, 미래 성장동력으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RE100 등 제시,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대·자·보 중심)’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도 “차세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333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스케일업 실증센터 구축, 미래혁신펀드 1조 원 확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 여수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을 실천과제로 제시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전례없는 동시 위기를 맞고 있다. ‘고유가·고물가·고환율’ 3고·저성장 고착화·트럼프 보호무역 강화·탄핵 정국까지 휘몰아치고 있다. 이런 위기로 광주·전남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사도가 지역민과 함께 뚝뚝 뚫고 나가면 헤쳐나갈 수 있는 위기 없다. 지역 출신인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광주 5월 정신은 대한민국을 계엄령으로부터 지켜냈다. 광주·전남의 저력으로 맞선다면 새해에 닥칠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며, 대한민국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원해 본다.

### 고교학점제, 입시의 틀부터 전면 바꿔야

#### 내년 광주·전남서도 전면 실시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5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존 교육과정인 아닌 진로·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을 눈앞에 둔 지금, 학교는 물론이고 학생들마저 고교학점제에 대한 근심이 크다고 한다.

당장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의 특성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한다. 지역교육지원청과 거점학교에 속해 여러 학교를 돌며 가르치는 ‘교과전담 순회교사’에 대한 우려도 높다. 가정이나 음악, 미술 등 입시와 거리가 먼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부탁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입시’라는 틀 속에서 우리 교육계가 가진 한계가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의 불만도 크다. 자신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의 교육 여건상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이수 학점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는 미지수다. 올해까지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면 졸업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별로 출석을 뿐 아니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최악의 경우 학점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낙제할 수도 있다. 틀에 박힌 교육과 반강제적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 셈이다.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옳은 방향이다. 그렇다고 학교 현장에서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은 필연적이다. 교육당국은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교사정원, 학점 이수 방안 등을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들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시와 정시부터 내신까지 국가적 차원에서 입시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6일(현지시각) 태국 팜양아주 타쿠아파 지역 반남켄에 있는 쓰나미 추모 공원에서 2004년 쓰나미 희생자의 유족이 꽃다발을 놓은 후 흐느끼고 있다. 2004년 12월 26일 규모 9.1의 해저 지진으로 인도와 태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등 인도양 연안 14개국에서 23만 명 넘게 숨진 바 있다. AP/뉴시스

全南日報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webmaster@jnilbo.com (062)510-0321

#### 서석대

“사주팔자에 정말 운은 있는가. 점은 정말 내 운을 알려줄 수 있나?.” 지난 2023년 명리학자 김성태가 펴낸 ‘점쟁이’는 35년간 명리학의 길을 걸었던 그의 여정을 담아낸 책이다. ‘점쟁이가 되고 싶었던 점쟁이’ 김성태. 점을 치고 굿판의 법사가 돼 경을 읊으며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걸었던 길은 ‘벼랑 끝에 선 그들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길을 찾는 여정’이었다. 봄이 와도 따뜻한 봄이 오지 않고 겨울이 와도 추위를 느낄 수 없었던 고된 길이기도 했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어선 안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

김성태에게 명리와 사주가 거스를 수 없는 인생이었듯 한국인들의 점(占)에 대한 신뢰는 유별나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결혼 전 사주단자를 보내 궁합을 보고, 신년이면 생년과 생일, 생시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사주팔자’를 통해 운명을 예측했다. 옛 선비들도 자신이 사주팔자를 하고 점을 치면서 스스로의 운명을 들여다 보고 치우침 없는 마음으로 수양을 쌓았다. 퇴계 이황 선생은 자신의 죽는 날까지 점괘로 알아차리고 죽음을 준비했다고 한다. 땅속의 지기(地氣)가 인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끼친다는 풍수지리설도 낯설지 않다.

800만 신이 존재한다는 일본도 신과 점의 나라다. 일본



망 어디나 신을 모시는 신사가 있고, 거리 곳곳에서는 점술가인 ‘가이센(街占)’을 만날 수 있다. 일본인의 점에 대한 집착도 상상 이상이다. 신문이나 잡지에는 으레 그날의 ‘운세’가 실리고 지금도 신년이면 한 해의 길흉화복을 미리 보려는 사람들로 점집이 장사진을 이룬다. 그렇다고 이들이 점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일본 최고로 유명세를 탔다는 점술가 호소키 가즈코가 고객에게 자주 하는 충고도 ‘열심히 살면서, 해결책을 찾고, 이젠 정신을 차려라.’는 게 전부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이 느닷없는 ‘점’ 때문에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 王’자부터 계엄과 탄핵까지 무속인이 관여했다는 증거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란 모의 혐의를 받는 전 정보사령관은 역술인으로 직접 점 집을 운영해온 것이 밝혀졌다. 초자연적 존재에 의지하는 샤머니즘의 역사는 깊다. 샤머니즘의 가치도 ‘우주만물이 하나라는 공동체 정신과,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이타주의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천공, 건진, 무정, 그리고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까지... 이타성은커녕 사리사욕에 눈이 먼 영터리 샤머니즘이 대한민국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나라마저 뒤 흔들고 있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진실보도 실천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지역개발 선도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m.jnilbo.com	1부 800원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